

## 만 24개월 영아의 도움, 나눔 행동의 발달\*

차 민 정\*\*  
김 은 영\*\*\*  
채 주 경\*\*\*\*  
송 현 주\*\*\*\*\*

### 《요 약》

본 연구는 만 24개월 영아의 도움, 나눔 행동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도움, 나눔 행동 발달의 개인차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본 연구는 만 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도움 행동과 나눔 행동 산출 빈도를 측정하였으며, 영아의 기질 및 어린이집 경험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영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이 요구되는 실험 조건에서 통제 조건보다 도움 및 나눔 행동을 더 많이 산출하였고, 나눔 행동보다 도움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기질과 관련하여서는 외향성의 하위요인인 즉흥성과 강한 자극 선호성의 수준이 높은 영아들이 낮은 수준의 영아들보다 도움 및 나눔 반응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험 여부에 따른 영아의 도움 및 나눔 행동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 해외 및 국내 연구에서 관찰되어 온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 과정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공한다.

**주제어:**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영아의 기질(child's temperament)

외향성(surgency)

어린이집 경험(children's experiences in child-care centers)

※ 논문접수 10.5 / 수정본 접수 12.21 / 게재승인 12.28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12-S1A3-A2033375)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교신저자(hsong@yonsei.ac.kr)

## I. 서 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공동체의 화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친사회적 행동-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자발적인 행동(Eisenberg, Fabes, & Richard, 2006)-이 요구된다. 일상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기다려 주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하는 등의 행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회화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도움이나 나누기와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습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생애 초기에 도움, 나눔 행동이 어느 정도 산출되며, 그러한 행동이 개인의 생물학적 성격 차원인 기질 및 특정 사회화 환경과 관련성이 있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과거 10년간 영아기에도 도움, 나눔과 같은 기초적인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나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e.g., Warneken & Tomasello, 2006; Brownell, Svetlova, & Nichols, 2009; Dunfield, Kuhlmeier, O'Connell, & Kelly, 2011; Dunfield & Kuhlmeier, 2013; Knudsen & Liszkowski, 2013). 영아기 친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 질문은 ‘영아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가?’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Warneken과 Tomasello (2006)은 정교하게 고안된 실험을 설계하여 영아들도 도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실험자가 빨래를 널다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빨래집게를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을 본 18개월 영아들은 집게를 주워서 실험자에게 건넨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영아들의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 산출에 대한 증거들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영아들은 타인에게 물리적 도움 뿐만 아니라 정보적 도움도 제공한다. 실험자가 혐오하는 물체가 담긴 양동이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손을 넣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영아들은 가리키기를 사용하여 실험자가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도록 정보를 제공한다(Knudsen & Liszkowski, 2013). 어린 영아들의 도움 행동은 외부에 의한 강화보다는 자발적 동기에 의해 유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적인 보상은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지 않았으며, 물질적인 보상은 오히려 도움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Warneken & Tomasello, 2008). 따라서 아이들이 보이는 친사회적인 행동은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적인 요소에 의해 발현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자원을 타인에게 주는 나눔 행동은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출현한다고 보고된다. 아동에게 아동 자신만 과자 하나를 얻을 수 있는 옵션(1:0)과 자신과 실험자가 모두 하나씩 과자를 얻을 수 있는 옵션(1:1) 중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경우, 실험자가 과자를 원한다고 요청할 때 25개월 영아들은 1:1 옵션을 고르지만, 18개월 영아들은 실험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선적으로 선택한다(Brownell, Svetlova, & Nichols, 2009). 실험자가 손바닥을 내밀면서 더 명확하게 자원분배를 요청하는 단순한 실험 절차에서는 18개월 영아들도 자신의 과자를 실험자에게 나누어준다(Dunfield et al., 2011). 이렇듯 나눔 행동도 도움 행동과 같이 이른 시기에 출현하지만, 동일한 영아 참가 집단을 대상으로 도움, 나눔을 측정

연구에 따르면 도움 행동이 나눔 행동보다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는 친사회적 행동 유형에 따라 다른 발달적 경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Dunfield & Kuhlmeire, 2013).

이렇듯 생애 초기부터 관찰되는 도움, 나눔 행동은 친사회성이 인간의 생득적인 특성을 수 있음을 반영한다. 친사회적 행동 발달의 문화적 보편성도 이러한 친사회성이 생득적 특성일 수 있음을 지지한다. 도움 행동의 초기 출현을 살펴본 비교문화 연구에 의하면, 캐나다, 인도, 페루의 만 2세 아동들이 일관되게 도구적 도움 행동을 나타낸다(Callaghan et al., 2011). 최근 한국 영아들의 친사회성을 측정 한 연구 역시 18개월, 24개월 영아들이 도움, 나눔 행동 산출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김윤숙, 조희숙, 2013). 캐나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Dunfield 등(2011)의 연구와 한국 영아를 대상으로 한 김윤숙과 조희숙(2013) 연구에서 24개월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산출 비율을 살펴보면 유사한 수준의 반응이 관찰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특정 연령집단의 영아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친사회적 행동 산출 경향성을 검증하였고, 그러한 발달과정에서의 개인차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 자료들은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산출에 있어서 상당한 개인차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Dunfield 등(2011)의 연구와 김윤숙과 조희숙(2013) 연구에서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 반응비율은 42-75%이며, 이는 타인의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영아들이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즉, 영아들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개인차가 있음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기 도움, 나눔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환경적 요인들을 탐색하여 친사회적 행동 발달의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는 발달적 기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 1. 기질과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사회적 행동의 생애 초기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영아들의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질에 관심을 가져왔다(e.g., Rothbart & Putnam, 2002). 초기부터 발현되는 성격적 요소인 기질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된다. 아동의 정서성, 생리적 규칙성, 자기조절의 기질적 요인들은 친사회성을 포함한 또래 유능성 및 사회성에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김근화, 2005; 박석규, 이은희, 2011; 임성실, 이정미, 김영희, 2010). 기질은 일찍 발현되는 영아의 성격적 차원이기 때문에 생애 초기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인적 요인으로 탐색할 가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차 요인으로 유전에 기반을 둔 성격 측면, 기질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Rothbart의 기질 모형에 의하면 만 2세 영아의 기질은 크게 세 가지 상위 차원, 즉 외향성, 부정적 정서, 노력통제로 나뉘는데, 각 차원들은 아동의 다양한 발달적 차원들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 차원 중에서 사회정서 발달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연구되는 기질

차원인 노력통제는 “비우세한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된다(Rothbart & Bates, 2006). 만 2세 영아들의 노력통제는 주의집중, 주의 전환, 신체접촉, 낮은 자극 선호성, 억제조절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다. 노력통제를 잘하는 아동일수록 잘 조절된 정서를 표현하고(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공감능력이 뛰어나다(Valiente et al., 2006), 우리나라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노력통제는 친사회성과 직접적으로 정적 관련성을 나타낸다(배윤진, 임지영, 2012). 어린 시기의 노력통제 기질은 향후 아동기의 친사회성과도 연결이 되는데, 억제조절 능력이 뛰어난 30개월 영아들은 이후 60개월이 되었을 때 친구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또래와도 스티커를 잘 나누었다(Paulus, Licata, Kristen, Thoermer, Woodward, & Sodian, 2015). 노력통제가 높은 아동들은 자기 초점적인 우세 반응을 잘 조절하여 타인 지향적인 친사회적인 행동을 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부정적 정서는 두려움, 슬픔, 불안, 좌절, 수줍음, 낮은 진정성, 지각 민감성, 활동 활성화 하위차원으로 구성된다. 일부 연구들은 부정적 정서와 친사회성 관련 구인들 간의 정적 관련성에 대해서 제안한다. 두려움 기질이 높은 10개월 영아들은 8개월 후 고통을 받는 대상을 향해서 근심을 보이고(Spinrad & Stifter, 2006), 슬픔 성향이 있는 30개월 영아들은 1년 후 부상당한 대상을 향한 동정반응을 더 많이 나타낸다(Edwards, Eisenberg, Spinrad, Reiser, Eggum-Wilkens, & Liew, 2015). 부정적 정서 기질 차원과 공감 관련 반응 간의 부적 관련성에 대한 증거들도 존재한다. 두려움 기질 성향이 강한 16개월 영아들은 22개월이 되었을 때 낯선 타인에 대해서 낮은 공감 반응을 보였다(van der Mark, van IJzendoorn, & Bakermans-Kranenburg, 2002). 최근에 18, 30개월 영아들을 대상으로 부정적 정서 중 두려움과 수줍음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 기질에 따른 도움과 나눔 행동 산출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Gross, Drummond, Satlof-Bedrick, Waugh, Svetlova, & Brownell, 2014).

마지막으로 노력통제, 부정적 정서 기질과 다르게 외향성 기질은 친사회성 초기 발달과 관련하여 보고된 바가 많지 않다. 외향성 기질의 하위 차원은 사교성, 활동수준, 강한 자극 선호성, 즉흥성, 긍정 기대로, 발달시기의 외향성 기질은 성인기의 성격 5요인의 외향성으로 이어진다고 제안된다(Putnam, Ellis, & Rothbart, 2001). 영아기 외향성과 친사회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없지만, 아동기 및 성인기의 외향성과 도움 행동 간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다(King, George, & Hebl, 2005). 사교성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서 실험실 환경에서 낯선 사람을 더 잘 돕는다(Stanhope, Bell, & Parker-Cohen, 1987). 또한, 높은 외향성은 자원봉사 활동을 예측하기도 한다(Burke & Hall, 1986; Kosek, 1995; Smith & Nelson, 1975; Carlo, Okun, Knight, & de Guzman, 2005). 이러한 외향성과 친사회성의 간의 관련성은 외향성 기질이 영아기의 친사회성 발달을 촉진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 2.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대한 환경의 영향

친사회성 발달은 문화, 부모의 양육형태, 보육 환경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Eisenberg et al., 2006; Köster, Schuhmacher, Kärtner, 2015). 문화에 따른 친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 중 하나를 살펴보면, 독일과 인도의 친사회성 발달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예, 자율성)와 영아들의 도움 행동 간의 연관성 정도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Kärtner, Keller, & Chaudhary, 2010). 이 연구는 문화와 부모의 가치가 상호 관련되어 아동의 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친사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육신념은 여러 문화에서 걸쳐서 일관되게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김예빈, 박성연, 2005; 서소정, 2006; Mills & Rubin, 1990). 부모의 양육신념과 더불어 양육형태도 아동의 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부모의 온정적이고 민감한 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아동의 높은 친사회성을 예측한다(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황영은, 2005; Kochanska, Forman, & Coy, 1999).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기관 역시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환경이다. 보육기관은 집단 상황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손혜숙, 2000; Yarrow, Scott, & Waxler, 1973). 보육 기관 경험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기존 연구들은 초기 어린이집 생활이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고(김민영, 손수민, 2014), 향후 아동기 사회적 적응과 연결되어 있음을 밝혔다(Babchishin, Weegar, & Romano, 2013). 어린이집 경험이 있는 재입영아와 경험이 많지 않은 신입영아의 놀이 및 기관적응에 대한 비교 연구에 따르면, 친사회적 행동, 긍정적 감정과 같은 행동 측면에서 재입영아가 신입영아보다 더 나은 적응 수준을 보였다(김민영, 손수민, 2009).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린이집 경험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린이집 경험이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의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윤숙과 조희숙(2013)의 연구는 18개월과 24개월 한국 어린이집 재원아들의 경우, 타인의 필요 및 정서가 명백히 표현되었을 때 영아들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지만, 어린이집 재원 여부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이 차이가 있는지는 검증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장면에서 친사회성을 측정한 기존 연구(김윤숙, 조희숙, 2013)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행동 과제를 사용하여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였고 어린이집 경험 여부를 조사하여 보육 기관 경험이 친사회적 행동 수준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다 통제된 실험 상황에서 어린이집 경험이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의 행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이전 연구에서 거의 검증된 바 없는 영아기 보육 시설 경험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 3. 본 연구의 목표

영아기의 친사회적 행동은 크게 도움 행동(helping), 나눔 행동(sharing), 위로 행동(comforting)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Dunfield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에 빈번하게 출현한다고 보고되는 도움 행동과 나눔 행동 산출 여부를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만 2세 영아들의 도움, 나눔 행동 산출 양상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우선 유사한 패러다임을 사용한 기존 연구(Dunfield et al., 2011; 김윤숙, 조희숙, 2013)를 반복 검증하여, 한국 영아의 도움, 나눔 행동 발달에 대한 자료가 일관적으로 도출되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다만 각 유형의 행동에 대해 1회의 시행만 실시했던 기존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행동에 대해 2회의 시행을 실시하여 영아들이 도움, 나눔 행동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여 1회의 시행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능력을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 만 2세 영아들의 도움, 나눔 행동 산출과 기질 및 어린이집 경험 여부가 관련이 있는가? 친사회적 행동 발달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차의 원인을 검증하는 것은 아동의 이후 적응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애 초기부터 출현하는 개인적 요인인 기질과 영아들의 어린이집 경험 여부가 도움, 나눔 행동 수준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영아기 친사회적 행동 발달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24개월 영아 20명(평균 월령: 24.85개월, 월령 범위: 24.02~26.58개월, 남아 10명, 여아 10명)이 참가하였다. 이 영아들 중 13명은 형제자매가 없었으며, 4명은 첫째, 3명은 둘째였다. 총 27명 영아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20명이 실험을 완료하여 분석에 포함되었고, 다른 7명의 영아의 경우 실험을 끝까지 진행하지 못하거나(2명), 주의를 뺏겨 실험에 집중하지 않거나(2명), 실험자의 실수로 실험이 중단되었거나(2명), 실험 녹화기기 상의 문제로 코딩이 불가능하여(1명)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구 참가 아동은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육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여 모집하였다.

## 2. 연구도구 및 절차

### 1) 친사회적 행동 과제

본 연구에서는 Dunfield 등(2011)에서 사용된 도움 행동(helping), 나눔 행동(sharing), 위로 행동(comforting)의 3가지 과제 중 도움 행동과 나눔 행동을 실험실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위로하기 과제를 제외한 이유는 24개월을 대상으로 한 Dunfield 등(2011), 김윤숙과 조희숙(2013)의 연구에서 실험자의 고통 표현에 적절한 반응으로써 위로행동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본 연구의 예비실험에서도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위로하기는 24개월 영아에게서 거의 출현하지 않는 과제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도움 행동과 나눔 행동만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 및 자극에 있어서도 약간의 수정이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 Dunfield 등(2011)과 김윤숙과 조희숙(2013)의 논문에서는 나눔 행동에서 실제 과자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과자가 아동에게 너무 매력적인 자극으로 작용하여 실험에 방해 요소가 될 것을 우려하여 모형과자를 사용하였다. Dunfield 등(2011)의 연구에서 영아의 반응 시간을 10초로 제한한 것에 비하여 본 과제에서는 한국 영아들을 대상으로 한 김윤숙과 조희숙(2013)연구에서처럼 반응할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하여 시간을 20초로 늘렸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영아 연구에 따르면 한국 영아들은 과제의 목표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서양의 영아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김은영, 송현주, 2011).

실험은 서울 소재 모 대학교 실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승인받은 참가동의서를 사용하였다. 보호자는 실험에 대한 소개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참가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참가 영아들은 실험자 및 실험실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하여 대기실에서 실험자들과 함께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 아동은 환경에 적응한 후, 보호자 동반 하에 실험자와 함께 독립된 실험 공간에 들어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영아는 실험 공간 가운데 놓인 탁자(가로 60cm X 세로 40cm X 높이 55cm) 뒤에 정해진 자리에 위치하고 보호자는 영아 뒤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실험이 시작되었다. 실험자는 탁자 맞은편에 영아와 마주보며 앉았다.

실험자는 영아들에게 도움 행동과 나눔 행동의 2가지 과제를 제시하였고, 각 과제마다 실험자는 도움 혹은 나눔 요청을 표현하는 행동(실험 조건)과 표현하지 않는 행동(통제 조건) 2가지를 실행하였다. 기존 영아들의 친사회성을 탐색한 연구(김윤숙, 조희숙, 2013; Dunfield et al., 2011)에 따르면 시행 종류(실험 조건, 통제 조건)가 제시되는 순서에 따른 효과는 없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경험과 기질의 특성에 따른 친사회성 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일관된 시행 순서가 제시되도록 하였다. 같은 종류 과제의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이 이어서 제시되지 않고, 항상 실험 조건이 먼저 제시되는 제약(예> 도움 행동 실험 조건 - 나눔 행동 실험 조건 - 도움 행동 통제 조건

- 나눔 행동 통제 조건) 하에서 시행의 순서는 역균형화되었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앞서 설명한 4가지 상황이 제시된 후, 같은 순서로 다시 한 번 반복하여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반복 측정하였다. 따라서 참가 영아들은 총 8번의 시행에 참여하였다.

#### (1) 도움 행동 과제(Helping task)

실험 조건에서 실험자는 탁자 위에서 분홍색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어이쿠!”라고 말하며 인형을 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다. 그 후 손을 뻗어서 영아에게 인형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아가 도움 행동 반응을 보일 때까지 실험은 20초 동안 진행되었으며, 처음 10초는 손을 뻗은 상태에서 인형을 응시하였고, 다음 10초는 손을 뻗은 상태에서 인형과 영아를 번갈아 가며 응시하였다. 통제 조건에서 실험자는 탁자 위에서 동일한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앞으로 몸을 기울여 의도적으로 바닥에 인형을 놓은 뒤, 다시 탁자 뒤로 돌아와서 “됐다”라고 말하며 팔짱을 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영아가 도움 행동 반응을 보일 때까지 실험은 20초 동안 진행되었으며, 실험자는 20초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인형이 놓인 자리만을 쳐다보았다.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 모두 영아가 도움 행동을 보이지 않은 채 전체 20초 경과하거나, 20초 이내에 도움 행동을 보인 경우에 실험이 종료되었다.

#### (2) 나눔 행동 과제(Sharing task)

과제 전 실험보조자는 영아가 탁자 바로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조정한 후, 영아에게 “이제 간식시간이야!”라고 말하였다. 그 후 실험자에게는 빈 접시가, 영아에게는 장난감 과자 4개가 담긴 접시가 제공되었다. 이때 실험 조건에서 실험자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오른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여 접시의 오른편 탁자 위에서 영아를 향해 내밀었다. 영아가 나눔 행동 반응을 보일 때까지 실험은 20초 동안 진행되었으며, 처음 10초는 슬픈 표정을 지은 상태에서 내민 손바닥을 응시하였고, 다음 10초는 손바닥과 영아를 번갈아 가며 응시하였다. 통제 조건에서 실험자는 무표정한 표정을 지으며 오른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접시의 오른편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영아가 나눔 행동 반응을 보일 때까지 실험은 20초 동안 진행되었으며, 실험자는 20초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손등만을 쳐다보았다.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 모두 영아가 나눔 행동을 보이지 않은 채 전체 20초 경과하거나, 20초 이내에 나눔 행동을 보인 경우에 실험이 종료되었다.

### 2) 영아의 기질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해 Rothbart(1996)가 개발한 ECBQ(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를 ECBQ(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를 김영아, 박진아, 그리고 박규리가 한국어로 번안한 질문지(<http://www.bowdoin.edu/~sputnam/rothbart-temperament-questionnaires>)를 사용하였다. 기질검사는 영아의 주양육자에 의해 설문으로 이루어졌다. ECBQ는 18~36개월의 걸음마기 영아의 기질을 평가하도록 고안되었으며, ECBQ는 3개의 상위범주와 18개의 하위영역에 총 201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3개의 상위범주에 대해서, 외향성은 활동수준/에너지, 강한 자극 선호성, 즉흥성, 활동 활성화, 긍정적 기대, 신체접촉, 수줍음, 사교성으로, 부정적 정서는 불안, 두려움, 슬픔, 진정성, 좌절로 조절 능력은 주의집중, 주의전환, 억제조절, 낮은 자극 선호성, 지각 민감성으로 제시하였다. 각 문항은 7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 그렇다(7)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어진 문항에 대한 영아의 특정 행동을 보호자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 응답할 수 없으면, '해당 없음'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도구 중 하위범주의 신뢰도인 Cronbach  $\alpha$ 는 활동수준/에너지 0.82, 강한 자극 선호성 0.61, 즉흥성 0.53, 활동 활성화 0.83, 긍정적 기대 0.80, 신체접촉 0.69, 수줍음 0.86, 사교성 0.92, 불안 0.62, 두려움 0.49, 슬픔 0.81, 진정성 0.68, 좌절 0.86, 주의집중 0.75, 주의전환 0.59, 억제조절 0.78, 낮은 자극 선호성 0.78, 지각 민감성 0.85이었다. 상위 범주의 Cronbach  $\alpha$ 는 외향성 .89, 부정적 정서 .87, 조절 능력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양육자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 기질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4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16명의 ECBQ 점수를 18개의 하위영역별로 평균을 내었을 때, 실험에 참가한 영아들의 ECBQ 기질 점수 평균(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활동수준/에너지 4.67(0.85), 강한 자극 선호성 4.94(0.73), 즉흥성 5(0.81), 활동 활성화 2.44(0.79), 긍정적 기대 5.5(0.79), 신체접촉 5.22(0.59), 수줍음 3.55(1.09), 사교성 5.15(1.11), 불안 3.3(0.68), 두려움 2.82(0.66), 슬픔 3.47(1.02), 진정성 4.99(0.79), 좌절 3.86(1.07), 주의집중 4.85(0.75), 주의전환 4.88(0.62), 억제조절 4.28(0.91), 낮은 자극 선호성 5.26(0.68), 지각 민감성 5.17(1)이었다.

### 3) 어린이집 경험 여부

본 연구에 참가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영아의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경험 여부, 실험 참여 당시의 어린이집 경험 기간, 하루에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 함께 활동하는 영아의 수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1).

〈표 1〉 참가 영아들의 어린이집 경험

|             | 어린이집 경험 유 | 어린이집 경험 무 | 무응답 |
|-------------|-----------|-----------|-----|
| N           | 7         | 8         | 5   |
| 평균 경험 기간    | 10개월      | -         | -   |
| 시간(1일)      | 6.6시간     | -         | -   |
| 활동 아동 수(1반) | 6.4명      | -         | -   |

## 3. 부호화(Coding)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실험 참가 모습을 비디오 녹화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모르는 평가자 2명에게 코딩을 실시하였다. 평가자 2인 간의 신뢰도를 위해서 비디오 장면을 부호화하여 Cohen's Kappa 계수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 2인 간의 신뢰도는 도움 행동

=.96, 나눔 행동=.97이었다. 모든 과제에서 친사회적 행동에는 1점, 비친사회적 행동에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각각의 친사회적 행동 시행에서, 참가 영아들이 실험자의 행동에 대한 친사회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때 0점을 부여하였으며, 실험자의 행동에 대한 친사회적 반응을 보였다고 판단되었을 때 1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한 실험에서 참가자가 받을 수 있는 총 점수는 0부터 8점이었다.

#### 1) 도움 행동 과제(Helping task)

도움 행동 과제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해당하는 영아의 행위는 바닥에서 인형을 주워서 실험자에게 건네주는 행동, 실험자의 손에 쥐어주는 행동, 그리고 탁자 위에 올려놓는 행동이다. 친사회적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인형을 쳐다보지 않는 행동, 인형을 주워서 영아 혼자 가지고 노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 2) 나눔 행동 과제(Sharing task)

나눔 행동 과제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해당하는 영아의 행위는 자신의 접시에서 과자를 꺼내 실험자에게 건네주는 행동, 실험자의 손에 쥐어주는 행동, 그리고 실험자의 빈 접시 위에 과자를 올려놓는 행동이다. 친사회적 행동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는 실험자를 쳐다보지 않는 행동, 과자를 꺼내서 노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 분석과 어린이집 경험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ANOVA와 McNemar Test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영아의 기질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분석을 위해 중앙값 분리(Median split)을 통해서 집단을 분류한 후에 각 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모든 통계적 과정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 Ⅲ.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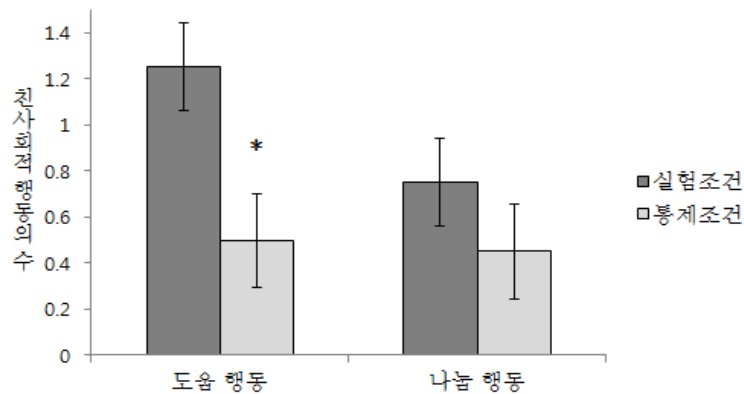
예비 분석 결과, 검사 시행의 조건(실험, 통제)에 대한 영아의 성별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아( $F_s(1, 18) < 1$ ), 성별은 이후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 1. 시행 조건 및 행동 유형 효과 분석

영아들의 도움, 나눔 행동 산출에 대하여 시행 조건(실험, 통제 조건)과 친사회적 행동

유형(도움 행동, 나눔 행동)을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여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행 조건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19)=15.545, p=.001, \eta_p^2=.450$ ). 즉, 실험 조건에서 영아들( $M=2.0, SD=1.41$ )이 통제 조건 영아들( $M=.95, SD=1.36$ )보다 도움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하지만, 행동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F(1, 19)=2.676, p=.118$ ), 시행 조건과 행동 유형 간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19)=3.084, p=.095$ )(그림 1).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조건별 분석을 해본 결과, 실험 조건에서 영아들은 나눔 행동( $M=0.75, SD=0.91$ )보다는 도움 행동( $M=1.25, SD=0.85$ )을 더 많이 보였지만( $F(1, 19)=4.524, p=.047, \eta_p^2=.192$ ), 통제 조건에서는 두 행동 유형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1, 19)=0.73, p=.789$ ).



[그림 1] 영아들의 검사 시행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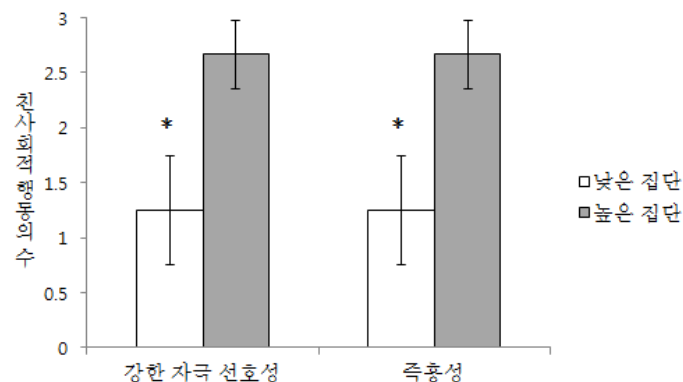
행동 유형별 분석을 해본 결과, 도움 행동의 경우, 영아들은 모두 통제 조건보다 실험 조건에서 더 많이 산출하였다. 총 20명의 영아들 중 실험 조건에서 한 번이라도 도움 반응을 보인 영아들의 수는 15명(75%)이었고, 통제 조건에서 도움 반응을 나타낸 영아의 수는 7명(35%)이었다. 이항분포를 사용한 McNemar 검증 결과, 도움 행동을 하는 수에 있어서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N=20, p=.008$ ). 첫 번째 시행에서 영아들은 실험 조건에서 총 20명 중 11명(55%)이 반응을 나타냈고, 통제 조건에서 총 3명(15%)이 도움 행동을 나타내었다( $N=20, p=.008$ ). 두 번째 시행에서 영아들은 실험 조건에서 총 20명 중 14명(70%)이 반응을 나타내었고, 통제 조건에서는 총 20명 중 7명(35%)이 반응을 나타내었다( $N=20, p=.016$ ). 따라서 영아들은 통제 조건보다 실험 조건에서 더 도움 행동을 많이 보여주었다.

나눔 행동의 경우, 산출빈도가 통제 조건보다 실험 조건 간에 유사하였다. 총 20명의 영아들 중 실험 조건에서 한번이라도 나눔 반응을 보인 영아들의 수는 9명(45%)이었고, 5명

(25%)이 통제 조건에서 나눔 반응을 나타냈다. 이항분포를 사용한 McNemar 검증 결과, 나눔 행동을 하는 수에 있어서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N=20$ ,  $p=.219$ ). 첫 번째 시행에서 영아들은 실험 조건에서 총 20명 중 6명(30%)이 반응을 나타냈고, 통제 조건에서 4명(20%)이 나눔 행동을 나타내었다( $N=20$ ,  $p=.625$ ). 두 번째 시행에서 영아들은 실험 조건에서 총 20명 중 9명(45%)이 반응을 나타내었고, 통제 조건에서는 총 20명 중 5명(25%)이 반응을 나타내었다( $N=20$ ,  $p=.219$ ). 즉 나눔 행동의 경우에는 실험 조건과 통제 조건에서 영아들이 보인 친사회적 행동 빈도수의 차이가 없었다.

## 2. 기질의 영향 분석

영아의 기질에 따른 도움, 나눔 행동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앙값 분리(Median split)를 통해서 각 기질 차원에서 상위, 하위 집단을 나누고, 두 집단 간에 도움, 나눔 행동의 빈도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보기 위해 독립 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향성의 하위 요인인 즉흥성과 강한 자극 선호성이 도움, 나눔 행동 산출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흥성이 높은 집단의 영아는 평균 2.67번의 친사회적 행동을 실험자에게 보였고( $SD=1.41$ ), 즉흥성이 낮은 집단의 영아는 평균 1.25번의 친사회적 행동을 실험자에게 보여( $SD=0.89$ ) 두 집단 간 행동 빈도 차이가 유의미했다( $t(15)=-2.435$ ,  $p=.028$ ). 또한, 강한 자극 선호성이 높은 집단의 영아는 평균 2.67번의 친사회적 행동을 실험자에게 보였고( $SD=1.00$ ), 강한 자극 선호성이 낮은 집단의 영아는 평균 1.25번의 친사회적 행동을 실험자에게 보였으며( $SD=1.39$ )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t(15)=-2.435$ ,  $p=.028$ ). 따라서 즉흥성과 강한 자극 선호성이 높은 집단의 영아는 낮은 집단의 영아보다 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다른 기질 차원에서는 이런 상위, 하위 집단 간 도움, 나눔 행동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ts<1.48$ ,  $ps>.16$ ).



[그림 2] 영아들의 기질에 따른 도움, 나눔 행동 빈도

### 3. 어린이집 경험의 효과 분석

영아의 어린이집 경험이 검사 시행의 도움 및 나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영아의 어린이집 경험 유무에 따른 영아가 산출한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수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F(1, 14)=.111, p=.744$ ).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도움 행동과 나눔 행동으로 구분되어 실험실에서 직접적으로 관찰되었고, 어머니의 보고로 측정된 영아의 기질 특성과 어린이집 경험과의 관련성이 분석되었다.

### 1. 선행 자료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영아들은 도움 행동과 나눔 행동 모두 실험 조건에서 통제 조건보다 더 많이 나타내었고, 나눔 행동보다 도움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영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보이며,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에 따라 출현의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24개월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전반적인 결과는 캐나다에서 진행된 Dunfield 등(2011)의 결과와, 한국의 어린이집 재원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김윤숙과 조희숙(2013)의 결과와 일관된다. 영아들은 통제조건에서보다 실험조건에서 친사회적 반응을 더 잘 나타냈으며, 친사회적 반응 유형 중에서도 나눔 행동보다는 도움 행동 반응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유형 중 도움 행동은 가장 먼저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눔 행동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제이고 도움행동과 비교해 적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Dunfield et al., 2011에서 재인용; Eisenberg, 2005; Grusec, 1991; Radke-Yarrow et al., 1976). 친사회성을 알아본 국내외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생애 초기의 친사회적 발달과 그 양상이 문화에 걸쳐서 비슷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Dunfield 등(2011) 및 김윤숙과 조희숙(2013)의 결과와 전반적인 패턴은 유사하지만 절대적인 측정치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관찰된다. Dunfield 등(2011) 및 김윤숙과 조희숙(2013)에서는 1회의 시행만 실시하였기에, 본 연구의 실험 조건의 두 시행 중 첫 시행에서의 친사회적 행동 산출율을 비교해보면, 도움 행동의 경우 세 연구에서 각각 50%, 75%, 55%, 나눔 행동의 경우 58%, 42%, 30%로 산출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참가자 간 차이일 수도 있으나, 실험 절차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과제에서 최대 20초 동안 나타난 영아의 친사회적 행

동을 측정하였다. 이 점은 10초의 반응시간을 허용한 Dunfield 등(2011)의 연구와는 다르지만 20초의 반응시간을 허용한 김윤숙과 조희숙(2013)과 같다. 긴 반응시간이 허용됨으로 인해 한국 영아들이 캐나다 영아들에 비해서 다소 높은 도움행동 비율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나눔 행동의 경우 반응시간이 김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특히, 본 연구의 영아들은 기존 연구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눔 행동을 덜 나타내었는데, 이는 모형 과자의 사용 등 절차적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유사한 절차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나눔 행동 비율의 원인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 2. 즉흥성과 강한 자극 선호성과의 관련성

본 연구가 의미 있는 점은 24개월 영아들의 친사회성 수준을 기질로 설명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이며, 또한 외향성에 따라서 친사회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남을 밝혔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외향성 요인 중 하위 기질 요인인 즉흥성과 강한 자극 선호성의 수준이 높은 영아들이 낮은 수준의 영아들보다 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영아들은 낯선 실험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20초란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낸 반응이 유효하였다. 이러한 과제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반응을 즉각적으로 나타내고 외부에서 제시되는 자극을 선호하는 영아가 도움 및 나눔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 가지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왜 조절능력, 부정정서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점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친사회성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조절능력이 언급된다(Eisenberg et al., 2007; Valiente et al., 2006).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조절 능력과 친사회성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의 특성상 영아의 조절 능력을 민감하게 측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눔 행동 과제에서 진짜 과자가 아닌 가짜 과자가 있는 상황에서 영아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나누어 줄 때 자신의 욕구를 크게 조절하지 않아도 되었을 수 있다. 오히려 조절 능력보다는 낯선 사람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질인 외향성이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이었을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한 기질은 연령에 따라 친사회성에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연령이 높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논문에서는 보통 즉흥성이 친사회성 및 공감 능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e.g., Eisenberg et al., 2007). 하지만 즉흥성은 모험심과도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Eysenck, & Eysenck, 1980)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하고 친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데 있어 즉흥성이 오히려 도

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질이 서로 간에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에 따라 친사회성에 달리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 정서가 높다고 하더라도 영아의 조절 능력에 따라 이를 통제할 수 있으며(Rydell, Berlin, & Bohlin, 2003), 기질 간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친사회성에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해 탐색한 연구에 따르면, 2세 영아들은 부정적 정서를 표현할 시 조절된 신호보내기와 같은 감정통제능력을 사용하여 정서조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승주, 2009).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기질 간의 조합에 따른 친사회성을 살펴보기에는 참가자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 3. 보육시설 경험의 영향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경험 여부는 영아의 친사회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수가 적고 어린이집 경험 여부에 무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15명 자료에서 도출된 결과이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 더 많은 영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경험에 따른 도움, 나눔 행동 수준을 체계적으로 비교한다면, 보육환경에 따른 친사회성 발달에 대한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결과를 제시해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린이집 경험이 만 2세의 영아의 사회인지 발달을 촉진한다는 선행 연구의 보고에 기반을 두면(김민영, 손수민, 2009; 김민영, 손수민, 2014), 보육 기관 경험이 친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은 존재한다. 어린이집 환경은 집단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정적인 교사는 아동의 사회 정서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 보육기관 맥락에서 발달은 교사와의 애착을 포함하여 보육환경 내에서 구체적인 경험,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아동의 개인적 특성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박은령, 나종혜, 2015; 박희숙, 2014; 전일우, 2014; 성지현, 2012; 윤수정, 2012). 향후 연구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어린이집 경험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본 연구는 만 24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 도움 및 나눔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과 영아의 기질, 어린이집 경험 유무 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도움, 나눔 행동 산출에 대한 즉흥성 및 강한 자극 선호성 기질 차원의 영향이 본 연구에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외향성 기질 차원은 기존 연구에서 친사회성과 관련하여 많이 검증되지 않은 차원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기 친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요인의 고유한 조합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기질과 친사회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영아들이 적응적인

발달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기질적 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만 24개월 영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화 및 어린이집 경험 여부의 영향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어린이집은 영아의 친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외의 주요 사회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두 요인의 관련성에 대한 탐색을 시도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 경험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추후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영아기 보육 시설 환경이 친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생애 초기 친사회적 행동은 다양한 환경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행동 수준의 차이가 개인이 가진 고유한 기질적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영아기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주면서, 중재 및 매개를 하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으리라 추정되며, 이는 향후 연구를 통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는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 경로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어떤 기질적 요인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친사회성과 관련된 영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도 유용한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곽승주 (2009).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2세 영아의 부정적 정서표현 및 조절에 관한 문화 기술적 탐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6), 1-29.
- 김근화 (2005).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영, 손수민 (2009). 만 2세 영아의 놀이성과 보육시설 기관적응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5), 65-89.
- 김민영, 손수민 (2014). 만 2세 영아의 개인적 특성과 어린이집 경험,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영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9(1), 287-308.
- 김예빈, 박성연 (2005). 남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회화 양육신념. *아동학회지*, 26(6), 145-161.
- 김윤숙, 조희숙 (2013). 18개월과 24개월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돕기, 나누기, 위로하기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449-468.
- 김은영, 송현주 (2011). 만 14개월 한국 영아들의 합리적 모방 능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23-136.
-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황영은 (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85-195.
- 박석규, 이은희 (2011). 유아의 대인문제해결능력과 기질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6(1), 257-278.
- 박은령, 나중혜 (2015). 유아의 어린이집 재원시간과 또래 유능성이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 향. 아동학회지, 36(1), 85-98.
- 박희숙 (2014). 24시간 어린이집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이 영유아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9(1), 267-285.
- 배운진, 임지영 (2012).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인지적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영향 요인: 부모와 유아의 의도적 통제와 애정적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3(3), 1-22.
- 서소정 (2006).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의 요구전략, 언어발달, 어머니의 친사회성에 관련된 양육신념 및 사회화전략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1(4), 287-310.
- 성지현 (2012). 유아의 연령과 놀이 영역에 따른 유아-보육교사 상호작용과 유아 언어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2(4), 229-253.
- 손혜숙 (2000). 복합애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친사회성과 반사회성. 유아교육연구, 20(3), 85-97.
- 윤수정 (2012). 영유아의 자기통제와 공격성 간의 교사-영유아관계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2(5), 145-161.
- 임성실, 이정미, 김영희 (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정서조절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5(2), 143-157.
- 전일우 (2014). 유아교사의 제반변인에 따른 유아문제행동 지도능력과 교사-유아 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4), 639-659.
- Babchishin, L. K., Weegar, K. & Romano, E. (2013). Early child care effects on later behavioral outcomes using a Canadian nation-wide sample. *Journal of Educational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3(2), 15-29.
- Brownell, C. A., Svetlova, M., & Nichols, S. (2009). To share or not to share: When do toddlers respond to another's needs?. *Infancy*, 14, 117-130.
- Burke, D. M., & Hall, M. (1986).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volunteers in a companion for children program. *Psychological Reports*, 59(2), 819-825.
- Callaghan, T., Moll, H., Rakoczy, H., Warneken, F., Liszkowski, U., Behne, T., et al. (2011). Early social cognition in three cultural context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6(2), 1-142.
- Carlo, G., Okun, M. A., Knight, G. P., & de Guzman, M. R. T. (2005). The interplay of traits and motives on volunteering: Agreeableness, extraversion and prosocial value motiv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6), 1293-1305.
- Dunfield, K. A., & Kuhlmeier, V. A. (2013). Classifying prosocial behaviour: Children's responses to instrumental need, emotional distress, and material desire. *Child Development*, 84, 1766-1776.
- Dunfield, K. A., Kuhlmeier, V. A., O'Connell, L., & Kelley, E. (2011). Examining the diversity of prosocial behavior: Helping, sharing, and comforting in infancy. *Infancy*, 16, 227-247.
- Edwards, A., Eisenberg, N., Spinrad, T. L., Reiser, M., Eggum-Wikens, N. D., & Liew, J. (2014). Predicting sy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from young children's dispositional sadness. *Social Development*, 24, 76-94.
- Eisenberg, N. (2005). The development of empathy-related responding.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51, 71-117.
- Eisenberg, N., Fabes, R. A., & Spinrad, T. (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 (Ed.),

-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pp. 646-718).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Eisenberg, N., Michalik, N., Spinrad, T. L., Hofer, C., Kupfer, A., Valiente, C., et al. (2007). Relations of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to children's sympathy: A longitudinal study. *Cognitive Development*, 22, 544-567.
- Eysenck, S. B. G., & Eysenck, H. J. (1980). Impulsiveness and venturesomeness in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 73-78.
- Gross, R. L., Drummond, J., Satlof-Bedrick, E., Waugh, W. E., Svetlova, M., & Brownell, C. A. (2015). Individual differences in toddlers' social understanding and prosocial behavior: disposition or socializ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6, 600.
- Grusec, J. (1991). Socializing concern for others in the home. *Developmental Psychology*, 27, 338-342.
- Kärtner, J., Keller, H., & Chaudhary, N. (2010). Cognitive and social influences on early prosocial behavior in two sociocultural contexts. *Developmental Psychology*, 46(4), 905-914.
- King, E. B., George, J. M., & Hebl, M. R. (2005). Linking personality to helping behaviors at work: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73, 585-607.
- Knudsen, B., & Liszkowski, U. (2013). One-year-olds warn others about negative action outcome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14, 424-436.
- Kochanska, G., Forman, D. R., & Coy, K. C. (1999). Implications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infancy for socialization in the second year of life.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22, 249-265.
-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232.
- Kosek, R. B. (1995). Measuring prosocial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7(3), 739-742.
- Köster, M., Schuhmacher, N., & Kärtner, J. (2015). A cultural perspective on prosocial development. *Human Ethology Bulletin*, 30, 71-82.
- Mills, R. S., & Rubin, K. H. (1990). Parental beliefs about social behaviors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38-151.
- Paulus, M., Licata, M., Kristen, S., Thoerner, C., Woodward, A., & Sodian, B. (2015). Early social understanding and self-regulation predict preschoolers' sharing with friends and disliked peers: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9, 53-64.
- Putnam, S.P., Ellis, L.K., & Rothbart, M.K. (2001). The structure of tempera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A. Elias & A. Angleitner (Eds.), *Advances/proceedings in research on temperament* (pp. 165 - 182). Lengerich, Germany: Pabst Scientist.
- Radke-Yarrow, M., Zahn-Waxler, C., Barrett, D., Darby, J., King, R., Pickett, M., et al. (1976). Dimensions and correlates of prosocial behavior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47,

118-125.

- Rothbart, M. K. (1996). Social development. In M. J. Hanson (Ed.), *Atypical infant development* (2nd ed., pp. 273-309). Austin, TX: Pro-Ed.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 R. Lerner (Series Eds.),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6th ed., pp. 99-166). New York: Wiley.
- Rothbart, M. K., & Putnam, S. (2002). Temperament and socialization. In L. Pulkkinen & A. Caspi, (Eds.), *Paths to successful development: Personality in the life course* (pp. 19-45). Cambridge, U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thbart, M. K. (n.d.). Mary Rothbart's temperament Questionnaires. Retrieved from <http://www.bowdoin.edu/~sputnam/rothbart-temperament-questionnaires/>
- Rydell, A., Berlin, L., & Bohlin, G. (2003).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adaptation among 5-to-8-year-old children. *Emotion*, 3, 30-47.
- Smith, B. M. M., & Nelson, L. D. (1975). Personality correlates of helping behavior. *Psychological Reports*, 37(1), 307-310.
- Spinrad, T. L., & Stifter, C. A. (2006). Toddlers' empathy-related responding to distress: Predictions from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behavior in infancy. *Infancy*, 10(2), 97-121.
- Stanhope, L., Bell, R. Q., & Parker-Cohen, N. Y. (1987). Temperament and helping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347-353.
- Valiente, C., Eisenberg, N., Spinrad, T., Reiser, M., Cumberland, A., Losoya, S., et al. (2006). Relations among mothers' expressivity, 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their problem behaviors: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Emotion*, 6, 459-472.
- van der Mark, I. L., van IJzendoorn, M. H., & Bakermans-Kranenburg, M. J. (2002). Development of empathy in girls during the second year of life: Associations with parenting, attachment, and temperament. *Social Development*, 11, 451-468.
- Warneken, F., & Tomasello, M. (2006). Altruistic helping in human infants and young chimpanzees. *Science*, 311, 1301-1303.
- Warneken, F., & Tomasello, M. (2008). Extrinsic rewards undermine altruistic tendencies in 20-month-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44, 1785-1788.
- Yarrow, M. R., Scott, P. M., & Waxler, C. Z. (1973). Learning concern for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8, 240-260.

## ABSTRACT

The development of 24-month-old children's helping and sharing behaviors

Cha, Minjung  
Kim, Eun Young  
Chae, Joo Kyung  
Song, Hyun-joo

The current study examined 24-month-old children's abilities to develop prosocial behaviors such as helping and sharing and whether their temperament and experiences in child care-centers influence this development. Twenty-four-month-old children were administered helping and sharing tasks and their parent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their children's temperament and experiences in child-care cente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ildren were more likely to exhibit helping and sharing behaviors in the experimental than in the control conditions. In addition, helping and sharing behavior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some dimensions of temperament such as impulsivity and high-intensity pleasure, whereas experiences in child care-centers had no influence.